

전남 승주 금평 구석기유적

이 선 복
(서 울 大)

본 유적은 1986년의 제 1차 주암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에 참여 하였던 송실대학교발굴단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이다. 송광면 신평리 금평부락의 지석묘유적을 조사하던 송실대학교발굴단은 지석묘 하부구조 및 유구주변 조사과정에서 3점의 타제석기를 수습하였는데 이들 유물은 지석묘와는 관계가 없는 이른 시기의 유물임이 감정 결과 밝혀졌다. 이들 유물의 출토는 아직 구석기유적의 확인보고례가 없는 전남지방에서 최초로 구석기유적 존재의 징후를 의미하는 중요한 자료인 바, 1987년도 추가발굴사업의 대상으로 본 유적이 채택된 것이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7년 6월 12일에서 7월 1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굴에 임하여서는 우선 1986년도에 유물이 수습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석묘발굴시에 설치된 구획선을 따라 전체 규모 $3 \times 8 m$ 의 주발굴갱을 설정하였다. 이어 주발굴갱에서 서쪽으로 $15 m$ 떨어진 지점에 토층확인용 시굴갱을 $2 \times 2 m$ 크기로 설정하였고, 다시 이곳에서 $23 m$ 떨어진 지점에 $1 \times 1 m$ 크기의 시굴갱을 설치하여 유적부근에 취토행위로 노출된 층위단면 및 발굴에서 확인이 기대되는 층위상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두 시굴갱에서는 표토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무문화층이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발굴대상예정 전지역에 걸친 지표지질상 및 상대고도의 흐름의 관찰에서 문화층은 작년도에 유물이 수습된 지석묘 주위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 결국 발굴은 전술한 $3 \times 8 m$ 크기의

발굴갱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다. 발굴과정에서는 또 이 주발굴갱에서 2 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다시 2×2 m 크기의 시굴갱을 설치하였는데 이곳은 이미 전년의 지석묘 조사시에 탐색트렌치가 설치되었던 곳이며, 금년도 발굴시에 이미 노출된 지표하에서 바로 무문화층이 시작되었다.

세 곳에 설치된 시굴갱의 현 지표하에서 곧바로 노출되기 시작한 무문화층은 발굴시에 설치한 임의측량기준점에서 비고 약 -20 ~ 60 cm 정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주발굴갱에서도 유물은 그 정도의 비고 아래에서는 수습되지 않았다. 전년도 수습품을 고려할 때, 발굴에서 수습이 기대되었던 유물은 매우 작은 크기의 세석기류이기 때문에 발굴은 전적으로 지표에서부터 대칼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발굴종료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유물은 주로 발굴갱의 북반에서 동서로 너른 범위에 걸쳐 분포하였다.

유물이 수습된 지층은 하층과의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은, 토층 단면 (soil profile) 상 B₂ 층 (B₂ horizon) 내에서 수습된 것이다. 이 B₂ 층은 유적이 위치한 퇴적성 하안단구의 최상면에 얇고 불규칙한 두께로 너른 범위에 걸쳐 분포하는 층이다. 유적이 위치한 하안단구 그 자체는 현재 보성강의 범람원에서 10~20 m 내외의 비고에서 동서 약 700 m, 남북 약 1000 m 규모로 발달하고 있으며 대체로 남동쪽의 배후산지에서 북서쪽의 강쪽으로 약 1.5° 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기반암의 노출고도는 일정치 않은 바, 이는 기본적으로 보성강의 곡류현상이 비교적 심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적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는 기반암의 노출이 뚜렷하지 않으며 발굴지에서 약 30 m 떨어진 곳에서 -400 cm 정도의 비고에 노출된 편암류로 구성된 기반암의 풍화층 상면이 확인된다. 실제 발

굴은 제한된 면적에서 제한된 깊이 (측량기준점 -110 cm) 까지만 이루어졌으나, 발굴지역의 층위상황은 유적 주위의 노두관찰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기반암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는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자갈층 (50 ~ 150 cm), 자갈과 점토 혼합층 (150 ~ 300 cm) 및 점토층 (50 ~ 100 cm)의 순서로 퇴적이 이루어졌다. 유물수습층은 점토층의 최상층으로서, 토층내에는 기반암에서 유래한 약간의 석영립이 섞여 있을 뿐, 거의 순수한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유물포함층에서 약 20 ~ 30 cm 아래에서 노출된 자갈·점토혼합층내에서는 소위 pseudolith가 상당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구석기로 오해하기 쉬운 이들의 존재는 이 하안단구의 발달과정에서 진흙사태 (mud slide) 같은 mass movement의 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발굴은 유물의 성격상 매우 느린 속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서, 비록 발굴토에 대한 전면적인 물체질은 하지 않았으나, 크기 3 ~ 4 mm 이상의 모든 자료를 수습하였다고 생각한다.

수습된 유물의 총점수는 136 점인데 그중에서 92 점이 석영제이며 44 점이 니암제이다. 석영제의 거의 대부분은 타격흔이 불규칙하며 사실상 의미있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나, 일부는 뚜렷한 타격 흔적을 지닌 돌날과 격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니암제의 석기류이다. 이들 모두는 아마도 한덩어리의 자갈을 모재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가장 가까운 원석의 산지가 이곳에서 약 20 km 정도 떨어진 동북면 일대인 점으로 보아 아마도 당시의 수렵채집경제집단에 의하여 운반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유물의 거의 대부분은 돌날이나 격지의 파편인데 이들은 예외없이 매우 뚜렷한 세석인기법

에 의한 손질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형을 갖춘 채 수습된 돌날에서는 그러한 면모를 매우 확연히 볼 수 있다.

도구로서의 석기로는 2점의 scraper, 1점의 dihedral burin (burin dièdre droit) 과 같이 유럽 후기구석기에서 보이는 전형적 유물과 더불어 소련학자들이 베르호예스카야 고라 조각기 (Verkhoyenskaya Gora burin) 라고 부르는 도구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1점 발견되어 이채롭다. 이것은 돌날의 한 끝에 횡위타격 (transverse blow) 을 가하여 만든 조각기 (transverse burin) 의 일종으로서 다시 그 날부위에 작은 홈날 (notch) 을 만든 것인데, 이는 시베리아 구석기의 지표유물의 하나로 대개 13,000 ~ 14,000 BP 이후에나 보이는 유물이다. 이의 발견은 이 유적에서 수습된 석기들이 전형적인 세석기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유럽구석기와 대비될 만한 것들도 후기구석기 만기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사실과 함께 본 유적의 상한연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기법과 유물은 동북아시아 내륙에서는 신석기 직전단계에도 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유적은 어쩌면 중석기초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 즉 중석기유적의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본 유적에서 수습된 것과 같은 성격의 유물이 수몰지구내의 세 지점에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본인의 관찰로는 이들은 모두 금형유적과 동일한 지질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동일시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생각된다. 만약 보성강수계 내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보다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이 확실하며, 이렇게 하여 발견된 유적·유물에 대한 총체적 연구에서 우리는 1만여년전 이곳을 점유하였던 수렵채집집단의 거주양식을 위시한 생활상의 제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